

이 재 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연구논문

미로 이미지를 통한 심상표현 연구

- 염색 작품을 중심으로 -

200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과

박 현 희

논문 개요

인간은 현실에 안주하고 발전하지 못할 때 불안, 고독, 회의, 허무와 절망감을 느끼게 되며 그 구속으로부터의 탈출을 원하고 시도하게 된다. 현실 극복에 대한 도전이 무모하기도 하고 실패의 반복이 될 수도 있지만 무한한 노력과 끊임없는 의지는 비로소 현실 상황 자체의 한계가 아닌 인간의 마음으로부터의 제약과 경계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준다.

두려움으로만 대했던 관념들에 의미를 부여하여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써 나를 억눌렀던 알 수 없는 압박감을 치유하며 현실을 똑바로 응시하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

그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일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내면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수많은 경험과 노력을 통해 보다 창조적인 인간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본인에게 있어서 미로는 현실 상황이자 시작의 공간이며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다. 현실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며 그 도전이 이루어질 길 바라는 미래에 대한 무한한 꿈을 꾸는 장소이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공간 속에서 파괴와 창조를 반복하며 심리적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가능성이 있기에 모든 경험과 판단력, 잠재되어 있는 일말의 능력까지도 동원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모색하며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실을 인식하는 공간이자, 두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며 나아가 내면적 성장까지 이루는 장소를 미로라는 공간에 비유하여 형상화함으로써 심상을 표현해 보고자 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II. 본론	3
1. 이론적 배경	3
1) 미로의 발견과 의미	3
2) 미로 구도의 응용	6
3) 미로를 통한 심상표현	9
2. 작품 제작 및 분석	11
1) 작품 제작	11
2) 작품분석	13
III. 결론	31

참 고 도 판

참 고 문 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 1】 어디로..., 견섬유(silk), 산성염료, 75×75cm, 2003 13
- 【작품 2】 미로-그 속에 길이 있다, 견섬유(silk), 산성염료, 121×97cm 2003 16
- 【작품 3】 미로-희망길을 만들다, 견섬유(silk), 산성염료, 87×70cm, 2003 18
- 【작품 4】 마음 따라...I, 견섬유(silk), 산성염료, 113×87cm, 2004 20
- 【작품 5】 마음 따라...II, 견섬유(silk), 산성염료, 113×87cm, 2004 21
- 【작품 6】 기대, 견섬유(silk), 산성염료, 80×150cm, 2004 24
- 【작품 7】 또 다른 시작, 견섬유(silk), 산성염료, 83×74cm, 2004 26
- 【작품 8】 심원(深遠), 견섬유(silk), 산성염료, 안료수지염료, 162×196cm, 2004 .. 29

도판 목차

- <도판 1> 늪지대, 모로코 남부
- <도판 2> 점성가가 쓰던 서판, 바빌로니아
- <도판 3> 어머니인 대지를 나타내는 호피족의 상징
- <도판 4> 만다라, 라자스탄, 18세기
- <도판 5> 성(城), 유럽의 만다라, 1928
- <도판 6> 자갈미로, 비에르 섬, 핀란드
- <도판 7> 쿠마족의 자수 주제
- <도판 8> 느텐제즈족의 자수 주제
- <도판 9> 파울 클레(Paul Klee), 「그림아치」, 유화, 59×56cm, 1937
- <도판 10> 파울 클레(Paul Klee), 「산촌」, 유화, 69×54cm, 1934
- <도판 11> 파울 클레(Paul Klee), 「번영하는 항구」, 템페라화
75×165cm, 1938
- <도판 12>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노랑, 빨강, 파랑」
유채, 127×200cm, 1925
- <도판 13> 엠씨 에세(M.C. Escher), 「상대성」, 석판화, 1953
- <도판 14> 지오반니 바티스타 피라네지(Giovanni Battista Piranesi),
「환상의 감옥」, 에칭, 54.5×41.5cm, 1760년경
- <도판 15> 안도 다다오(Ando Tadao), Bigilidue, 일본 오사카

I. 서론

1. 연구 목적

예술이란 단순한 모방이 아닌 일상적인 현실, 체험을 토대로 내면의 진실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관적이고 독창적으로 조형화 하는 것이다.

예술가에게 있어서 그 자신의 삶은 직접적인 창작의 원동력 내지는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작품은 축적된 경험과 기억을 통한 이미지들이 정서적 감각을 자극하여 가시화되는 것인데 그것이 내적 진실성과 결합하여 보다 나은 양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술가가 체험되어진 현실과 내재된 경험을 화면 위에 표현함으로써 관람자와의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고 그 공감대의 형성이 감동으로 연결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예술이라는 표현 형태는 시대사조에 따라 변화하고 그 강조점도 달라지게 되는데 그 표현 방법이 엄청나게 다양해지면서 저마다의 삶의 모습을 자신만의 소재와 방법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이에 본인은 무수히 많은 표현 대상 중에서 미로라는 공간 이미지를 표현 소재로 선정하고 본인의 내면세계와 결합하여 이를 자아가 처한 현실 상황과의 비유를 통한 심상 표현으로 대상을 재구성하여 염색 회화로서의 조형적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내지는 좁은 일상 생활 속에서의 주관적 체험으로 얻어진 감정들을 미로라는 공간 이미지에 이입시켜 대상을 재구성하여 표현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 미로의 발견과 의미, 미로의 구도를 응용한 작품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본인의 주관적 재해석으로 표현된 미로 이미지와 그 결과인 작품을 통하여 조형적 의미를 정리해 보았다.

표현 방법으로는 염색 기법인 납방염을 사용하였는데 납방염 기법은 단계적인 방염과 염색에 의한 색의 농담 변화로 입체의 깊이와 확장된 공간감을 표현하는데 적합하였다.

또한 실크스크린(silk screen) 기법과 알코올 기법, 판넬을 통한 부조적 표현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독특한 질감과 형을 나타내 주려 하였으며 염색미술의 다양한 표현 가능성을 재확인 하고자 하였다.

II. 본 론

1. 이론적 배경

1) 미로의 발견과 의미

아주 오래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갖가지 방법으로 기호들을 만들어 왔고 그 남겨 놓은 기호들 중 하나가 미로다.

미로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지금까지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 중의 하나인데 아주 독특한 모습의 미로 그림이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느 지역에서 가장 먼저 발생했는지, 어떻게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비슷한 모양으로 사용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동굴이나 깊은 구렁을 탐사하고 구불구불한 강줄기, 복잡하게 얽힌 강의 지류, 강이 숲을 통과하는 모양<도판1> 등을 살펴보면서 생겨났을 것이라고 추측할 따름이다.¹⁾

미로 모양은 수많은 지역과 민족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데 바빌론에서 발견되는 많은 돌들 위에 미로<도판2>가 그려져 있다.

페루의 나즈카(Nazca)족들은 자연적으로 망간이 덧씌워진 하얀 석회암 고원에 미로를 남겨 놓았는데 이곳에는 지름 20m나 되는 3중원과 동물의 그림들로 이루어진 미로가 펼쳐져 있다.

또한 크레타 인들이 남겨 놓은 미로들과 형태가 똑같은 사각형 또는 원형의 것 <도판3>들을 호피(Hopi)족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아나사지(Anasazi)라는 명칭을

1) 자크아탈리, 『미로-지혜에 이르는 길』, 이인철 역 (서울 : 영림 카디널, 1997), p.37

지닌 호피족은 북아메리카의 가장 오랜 정착 민족으로서 아리조나주에 있는 세 개의 메사(mesa)²⁾에서 많은 돌에다 미로 그림을 새겨 놓았고 오하이오 주에서는 흙으로 뱀의 모습을 떠낸 기념물 위에 남겨 놓았다. 길이 400m에 넓이가 7m나 되는 이것은 서부 산맥을 향한 그들의 여행이 끝날 때까지 그들의 민족을 보호해 주는 동방의 수호자인 뱀을 나타낸 것으로 호피 족이 미로화 시켜 놓은 것이다.

역시 같은 시기에 중국에서도 통퉁동굴에 미로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티베트 사람들은 만다라(mandara)라고 하는 특별한 형태의 미로를 만들어 냈다. 이것은 원과 사각형 뚫린 길과 막힌 길 등으로 구성된 복잡한 모습을 보여준다.<도판4,5>

로마에서는 아이들이 돌아다니며 즐길 수 있도록 풀밭에 미로를 그려 놓았다고 전하며 로마인들의 도장이나 무덤에서도 미로의 문양을 찾아 볼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아일랜드, 브르타의 켈트족은 그들의 요새 입구나 그 외의 많은 비슷한 지형에 미로 문양을 남겨 놓았다.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종종 모래 위에 미로 문양을 만들어 놓았으며 린드파크(Lindbacke), 니코핑(nyköping), 갈그베르그(Galberg), 비스비(Visby), 아룬드회그(Arundehög)등과 같은 연안 도시에서는 항구 입구에 조약돌로 미로의 문양을 만들어 놓았다.<도판6>³⁾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미로는 종교 역사상의 주된 실마리의 하나로써 간과 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데 사전적 의미로는 한번 들어가면 드나드는 곳이나 방향을 알 수 없게 된 길을 말한다.

한편 자크아탈리는 “미로는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적어도 하나의 입구와 출구

2) 꼭대기가 평평한 봉우리

3) 자크 아탈리, 전게서 p.48, 49.

또는 중심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통로를 갖추었지만, 출구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표지도 없는 복잡한 길을 말한다. 미로는 불투명한 장소이며 그 길을 설계하는데 어떤 법칙도 없다. 그것은 우연과 의외의 상황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순수 이성의 패배를 뜻 할 수도 있는 곳이다.”라고 했다.

서로 수 천 킬로미터씩 거리를 두고서 암석 위에 새겨졌거나 벽 위에 그려진 미로는 최근에 이르러 유목민이 정착민으로 바뀌면서 성소로 자리 잡았다. 이제 미로는 그 자리에서 신성함을 상징하게 되었는데 이집트에서는 영혼이 가는 길을 상징하며 지중해 주변에서는 미로가 의식을 위한 춤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 중국이나 아메리카의 문화권에서는 자신의 본질을 추구하는 인간의 내적 여행을 말해 준다.⁴⁾

또 다른 지역에서는 미로가 세상의 창조를 위한 여행 또는 인류의 탄생을 위한 여행을 뜻했는데 고대 로마인들에게는 우주를 나타내고 인류의 운명을 예언하며 죽은 자들의 여행을 뜻했다.

이처럼 미로를 어떤 하나의 의미로 단정하기는 힘들다. 그것은 지역과 시대 민족에 따라 원시적인 형태의 문자일 수도 있고 하나의 예술 작품일 수도 있다. 신비스러운 신호일 수도 있고, 방랑의 장소일 수도 있으며 낙원으로 인도하는 길일 수도 있는 것이다.

본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미로는 현실의 치열하고 선명한 세계이며 끊임없는 인생의 반성과 성찰을 하며 미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장소이자 내적 성장을 이루는 삶의 길이다.

4) 자크아탈리, 전제서, p.28.

2) 미로 구도의 응용

모든 예술의 창조는 미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작가의 고독이나 의구심은 자신이 출구나 해결책을 찾아낼지 알 수도 없으면서 미로 속 길을 더듬는 모험가의 그것과 전혀 다를 게 없다.

즉 작품이란 미로를 통과하고난 결과인 것이다. 수많은 예술 작품과 그 외의 여러분야에서 미로의 성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다양한 장르에서 다양하게 응용되어 왔고 응용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이르의 쿠바족, 특히 느텐제즈족의 옷감 위에 그려진 미로 도형들은<도판 7,8> 러시아의 소니아 들로네(Sonia Dalaunay 1885-1979), 스위스의 파울 클레(Paul Klee 1879-1940)<도판9,10,11>, 러시아의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도판12>, 프랑스의 장 뒤뷔페(Jane Dubuffet 1901-1985) 등의 화가들의 작품 구도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클레는 미로와 같은 선사 예술에 관해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다.⁵⁾

“최초에 무엇이 있었는가? 만물은 말하자면 직선도 아니고 곡선을 따르지도 않았으며 자유분방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만물은 근본적으로 유동적인 것으로 구상되었음이 틀림없으며, 되는 대로 뻗어 나갔고, 목적도 없고 의지도 없고 법칙도 없이 헤매고 다녔다. 움직임은 명명백백히 자연을 나타내는 것이요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표현이었다”라는 그의 말에서도 확인 할 수가 있다.

엠씨 에셔(M.C Esher,1898-1972)는 미로를 그의 기본적인 주제 중의 하나로 삼았는데, 그의 작품 상대성<도판13>은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이다. 이 그림 속의 두 사람은 같은 계단으로 다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 한 사람은 올라가고 있고 한 사람은 내려가고 있다. 두 사람이 같은 계단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가는

5) 자크아탈리, 전제서, p.215, 216.

데 한사람은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한사람은 내려가는 것이 가능할까? 이 그림은 마치 미로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하며 미로나 삶속에서의 불확실성이 인생의 재미와 외로움을 동시에 준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지오반니 바티스타 피라네지(Giovanni Battista Piranesi 1720-1778)의 작품에서는 분해된 계단과 아치 등이 중첩되어 무한하게 반복되는 특이한 구성을 띠고 있다. 파편화된 계단의 중첩, 아치의 중첩, 단편화된 공간의 중첩은 그 안에서의 관찰자의 움직임과는 무관하게 형태, 물체, 공간의 움직임에 의한 역동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의 작품 '환상의 감옥<도판14>'에서 꿈과 허구의 감옥은 그 압도적인 박력과 비일상적인 공간 감각으로 미로성을 확대시켜 주었는데 이러한 환상의 미로 공간이 그가 추구한 공간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건축에서는 미로 구도 자체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 의지를 나타내는 등 미로를 활용한 복합 공간 형성이 시도되고 있다.

과거 정착 민족들이 세운 최초의 마을이 자연적인 미로를 따라 형성된 것과, 카파도스⁶⁾의 케미클리와 드린쿠유등지에 동굴이 나란히 들어선 모습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최초의 도시 성벽들은 적의 침입을 늦출 수 있도록 미로의 구조를 따서 구축하였다. 그 뒤로 도시가 확장되면서 이번에는 거리인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미로를 형성하였다. 지금도 성벽으로 둘러싸인 채 메안드르 형태의 거리를 갖춘 도시들이 많이 있다.⁷⁾

건축가 안도 다다오(Ando Tadao 1941-?)는 그의 건축 작품에 미로 이미지를 나타내었는데 미로의 아이디어가 가장 문명하게 나타난 것은 일본 오사카에 건축된 bigilidue<도판15>이다. 일본의 전형적인 필지구조와 좁고 긴 대지의 특성을

6) Cappadoce : 터키의 아나톨리아 중원 고원에 위치

7) 박혜성, "미로에서의 공간체험과 특성에 관한 연구", 건대 석사학위논문, 2000, p.37.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건축물의 좁은 전면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넓은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건축된 것이 특징이다. 접객공간과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를 탄생시켰고 단순한 건축 구성의 내부가 아닌 내부에 변화가 넘치는 공간을 창출하였다. 이는 지하에서 지상까지의 계단을 미로처럼 풀어 재미를 더해 준다.

“건물 내부로 거두어들인 길은 기하학적으로 단순화된 미로와 같이 복잡함이 서로 교차되어 있다. 사람들은 제각기 독립된 가게의 사이를 걸으며 갑자기 열린 하늘과 만나고, 수면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게 될 것이다”⁸⁾ 라는 그의 말과 같이 형태와 공간, 단순성과 복잡성 등의 조화를 통한 세심한 공간 연출에 의하여 시간 속에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공간의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즉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의 공간이 조합되는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새로운 전체의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환상의 미로를 잠재시킨 건축을 만들어 왔다.⁹⁾

이렇듯 미로 이미지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사용되며 응용되어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 되었다.

8) 전인도, "안도다다오의 건축철학과 공간구성", 건축문화, 1994년 11월.

9) 이영일, "일본 아틀리에 건축가 안도 다다오", 플러스, 1992년 9월.

3) 미로를 통한 심상표현

오늘날의 어떤 예술가도 그의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어떤 예술도 '현실'에서 완전히 떠날 수 없다.¹⁰⁾

즉 예술가에게는 자신이 체험해 온 지나간 시간이나 현재의 상황과 감정 또는 이상에 대한 염원 등이 내포된 미래의 공간까지도 창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술은 현실의 반영으로서 작품 속에서 그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본인의 경험으로 얻어진 내적 외적 깊이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미로라는 공간 이미지를 선택하여 여러 가지 환경으로부터의 영향과 내재된 감정과 결부시켜 가시화 시킴으로서 새로운 조형 세계를 창조해 나가고자 하였다.

어느 시대이든지 주변 환경의 대상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각기 다르게 보이고 각자의 감정에 의해 표현 방식도 달라지게 된다. 즉 예술가들은 각자가 취한 시각의 초점 여하에 따라 자신의 개성과 세계관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미로라는 공간은 극복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며 미래의 가능성에 도전하고 노력하고 꿈꾸는 현실 세계로 비유된다.

미로 안에는 어떠한 이정표도 없으며 오는 길과 가는 길, 나선형 길과 막다른 통로, 멀면서도 가까운 곳으로 가득 차 있다. 어느 곳이 출구와 연결된 길인지 그 복잡함에 대해 미리 알지 못 하며 알 수 도 없다. 다만 보이지 않는 출구를 향해 쉬지 않고 전진함으로 그 공간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인생 또한 막다른 상황에 부딪치기도 하고 한없이 뒤로 갔다가 목표에 접근했나 싶으면 그 어느 때보다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한 과정들 속에 실패를 거듭하기도 하고 목표를 잃기도 하지만 미래에 대

10) 한상련, 「시간과 공간」, 대원출판사, 1980, p.25.

한 가능성과 꿈을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강한 의지는 보다 희망적으로 다가올 미래를 만들어 주며 어려운 현실 상황을 이겨내게 해 준다.

미로는 삶의 이치, 법도, 수단을 상징하며 현실을 살고 있는 인생 그 자체를 나타낸 것이다. 인간의 삶은 미로를 가로지르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어느 길을 택하느냐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즉 인간은 누구나 삶이라는 미로에 억지로 떠밀려 와 인생의 길에 들어선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면서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지만 이러한 시련의 과정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끈기 있게 추구할 수 있는 힘과 인내할 줄 아는 자세를 배우게 되고 실패와 실망에 꺾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움으로 보다 창조적인 인간이 되어 현실 공간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맞게 될 것이다.

삶에 있어서 미로는 무한한 변화의 공간인 동시에 희망과 소망 가능성이 잠재해 있는 공간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방식대로의 삶을 계획하고 선택하며 나름대로의 길을 만들어 나간다.

그 길은 어느 누구와도 같을 수 없으며 누군가가 대신하여 줄 수도 없다. 따라서 걷는 개개인이 주체자가 되어 개척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주관적인 감정들을 미로 이미지에 포함시켜 가시적인 작품으로 표출하고자 하였다.

2. 작품 제작 및 분석

1) 작품 제작

본인의 작품 표현을 위한 제작 방법으로 염색(染色)을 선택하였다. 염색은 섬유분야 중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대중 생활과 접목시킬 수 있는 친근한 방법이며, 공예분야 중 회화적이면서 색의 표현 또한 자연스러워서 강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다.

염색할 재료로 동물성 섬유 중 견(silk)직물을 사용하였다. 견직물은 산에 저항력이 강하며 흡수력이 뛰어나고 표면의 부드러운 감촉과 광택으로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표현 방법으로는 염색 기법의 여러 가지 방법 중 납방염을 사용하였다. 방염이란, 염색하지 않을 부분에 염료가 침투하여 염색되어지는 것을 막아 가며 원하는 색으로 그림을 그려 조화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그 중에서 왁스류에 의한 방염은 다양한 방염법 중에서도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것은 왁스의 특별한 성질에 의해서 방염이 용이하며,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염료로는 채도가 높아 색상 표현이 선명한 산성염료를 택하였다. 산성염료는 물에 잘 용해되며 일광, 다림질, 수세에도 강한 염료이다.

작품 제작에 앞서 염색의 전 처리 과정으로 정련이 있다. 정련은 염색할 천에 묻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중성세제, 무기세제, 알코올세제 등이 정련제로 쓰이고 있다.

이 방법으로 염색하고자 하는 천의 중량의 25-30배 가량의 미지근한 물에 세제를 천의 무게의 3%정도를 넣어 30-40분간 담근다. 그 후 천을 여러 번 행구어 건조시킨다. 이렇게 정련된 천은 염색시 불순물들이 염료의 침투를 방해하는 것을

막아 주고 균일한 염색이 되도록 해준다.

정련된 천을 틀에 팽팽하게 건 다음 밑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파라핀을 이용하여 방염한 후 염액을 칠하며 원하는 농도와 색상을 표현한다.

그 후에 후처리를 하게 된다. 후처리는 염색물에 묻은 납의 양이 많을 때는 먼저 납을 털어서 일부는 제거하고 나머지 납은 오래된 신문지를 염색물의 위아래에 놓고 다림질하여 납을 제거한다. 이 방법을 여러 번 반복하여 납이 충분히 제거되면 염색물의 위아래에 오래된 신문지를 놓고 돌돌 말아 증열기에 넣고 100℃ 이상의 고온에서 1시간 정도 증열 처리한다. 증열 처리 후 납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염색물을 휘발유에 넣고 중탕 처리하거나 탈납제에 넣어 납을 완전히 제거한다. 그 후 견뢰도를 높여 주기 위해 염료고착제(물1ℓ:고착제 5cc)에 약 30분간 담갔다가 꺼내어 수세하여 건조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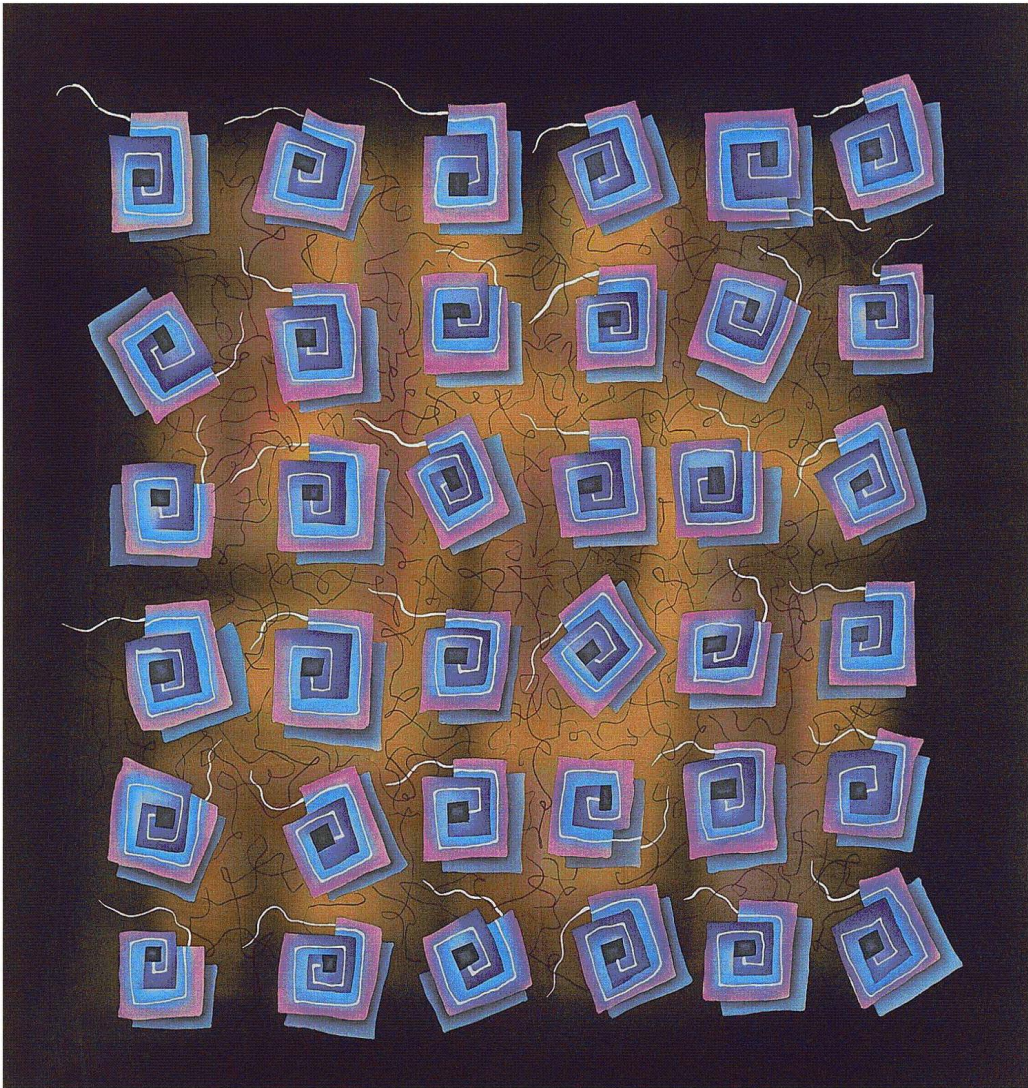
본 연구자는 <작품8>에서 실크스크린(silk screen)기법을 사용하였다. 제작 방법은 나타내고자 하는 형태를 트레팔지위에 먹물로 그려 준다. 그 후 샤를 팽팽히 틀에 걸어 감광액을 바른 후 건조시킨다.

건조된 샤위에 트레팔지를 올리고 스크린 판을 밀착시켜 감광 후 수세하여 잉크를 발라 찍는다. 프린팅 할 때는 바인더와 안료를 섞어 색을 만든 후에 천위에 틀을 올려놓고 색을 올려서 스퀴지로 고르게 밀어낸다. 그 후 다림질로 고착시켜야 한다.

<작품2,3>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 실크위에 납방염한 실크를 판넬에 덧씌워 이것을 붙여 입체적으로 제작하였다.

2) 작품분석

【작품 1】 어디로...



견섬유(Silk), 산성염료, 75×75cm, 2003

【작품 1】 어디로...

재 료 : 견섬유(Silk), 산성염료

기 법 : 납방염

크 기 : 75×75cm

제작연도 : 2003

사람들의 생활은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생활이 연속이다.

특별한 일 도 없이 어제의 일들을 오늘도 반복하면서 늘상 그래 왔듯이 하루 하루를 보낸다.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이러한 일상적인 삶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혼자만 멈춰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한다. 폐쇄적으로 순환하는 자신의 삶을 발견하게 되고 극도의 혼란과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그 불안감은 지난 행동들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틀에 박힌 현실 상황에서의 탈출을 원하고 시도하게 한다.

이로 인한 탈출 의지는 보다 많은 경험을 하게하며 두려움과 불안감까지도 극복하게 해주어 발전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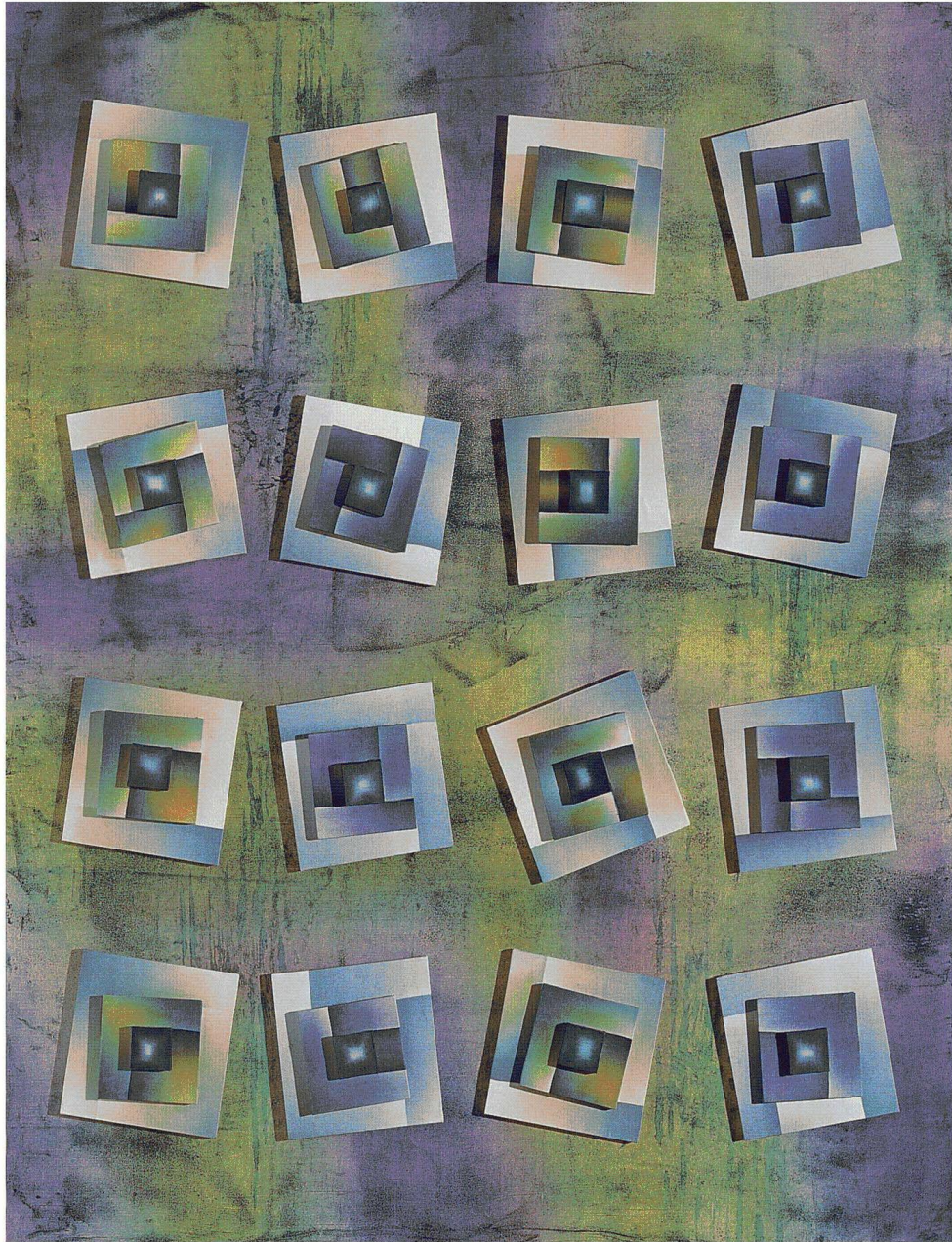
본 작품에서는 화면 전체에 비슷한 나선형의 미로 모양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게 배치함으로 지루한 일상을 표현했는데 그러한 반복이 자칫 진부해 보일 수 있기에 규칙적인 리듬감을 만들어내어 시각적인 흥미를 유발시키려 했다. 또한 그 속에서의 작지만 점진적인 변화를 통하여 창조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 가능성을 표현하였다.

바탕에 깔려 있는 얇은 선의 얽힘은 구차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일상생활에 대한 불만과 불안감을 나타내었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위에 그

려진 흰색의 선으로 불안한 현실 생활에서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미래로 가는 길을 찾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배경 부분의 색채는 어두운 갈색(Dark brown)을 주조로 하여 현실의 어두운 상황을 보여주면서 부분적으로 채도가 높은 핑크색(Pink)과 노란색(Yellow)을 사용하여 희망을 이미지화 하였다.

【작품 2】 미로-그 속에 길이 있다.



견섬유(Silk), 산성염료, 121×97cm 2003

【작품 2】 미로-그 속에 길이 있다.

재 료 : 견섬유(Silk), 산성염료

기 법 : 납방염

크 기 : 121×97cm

제작연도 :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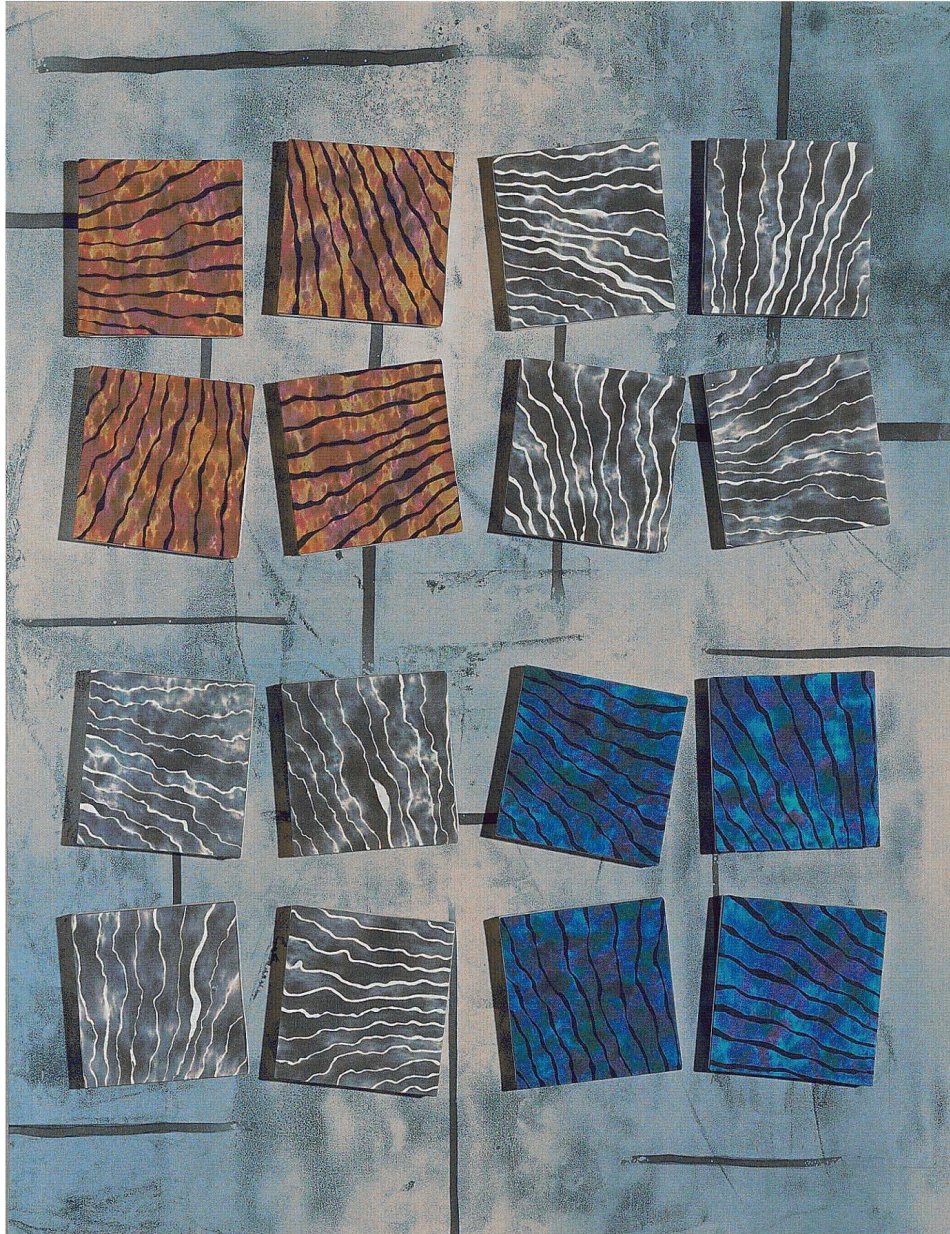
태어날 때부터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인간의 내적 자유성과는 달리 현실은 수많은 구속과 술한 억압, 개성을 무시한 천편일률적인 획일성 속에 짓눌려 있다. 항상 기준이 되는 모습이 있으며 그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낙오자로 인식된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은 현실 시각을 더욱 애매하고 불확실하게 한다. 남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며 서로간의 보이지 않는 경계심을 만든다.

본 작품은 이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내심의 본능적 자유 욕망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판넬에 염색한 실크(silk)를 덧써우는 과정을 거쳐 가장 큰 것, 중간 것, 작은 것의 순서로 이루어진 3단구성으로 입체적인 느낌을 강조하였으며 그 속에서의 면 분할을 통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서의 경계심을 나타내려 하였다. 사각형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면 분할을 점차적으로 없애 주어 그것의 극복을 나타내려 했으며 가장 작은 사각형 안에서는 어둠 속에 빛이 비치는 것 같은 흰색(white)의 표현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자기 상황의 극복을 이미지화 하였다.

【작품 3】 미로-희망길을 만들다.



견섬유(silk), 산성염료, 87×70cm, 2003

【작품 3】 미로-희망길을 만든다.

재 료 : 견섬유(Silk), 산성염료

기 법 : 납방염

크 기 : 87×70cm

제작연도 : 2003

인간은 본래 자신의 삶에 안주하려 하지 않는다.

현재의 불완전한 자신으로부터 탈피하여 보다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인생의 고통이나 부조리한 삶의 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현실을 수용하고 극복하며 본성적 제약으로부터 탈피하고 인생의 가치를 찾아 끊임없이 도전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움 속에 가려져있던 길을 보여준다. 순간 순간 이정표가 되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밖으로 나가는 문까지도 보여준다. 그 문밖으로 나간 세상은 희망의 빛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배경에 수많은 점들은 파라핀을 얇게 발라 염료를 침투시켜 생긴 얼룩으로 현재의 불완전한 심리묘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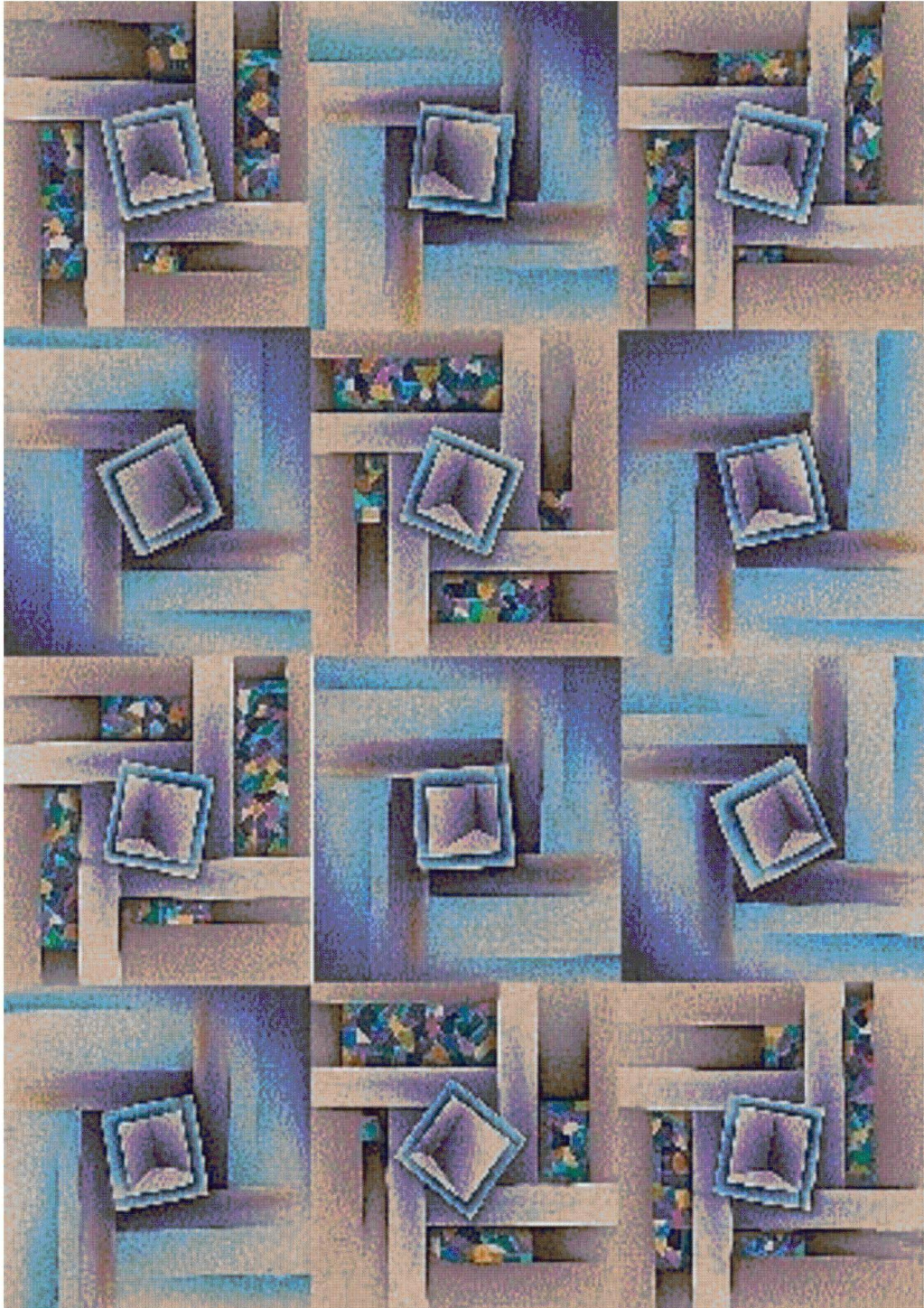
끊겨진 수직선과 수평선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아를 표현한 것이며 그로 인한 현실 극복을 사각형을 통하여 나타내 주었다.

<작품4>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넬을 이용한 입체 표현으로 현실의 복잡함과 미래의 자유로움에 대한 분리를 표현하려 하였으며 사각형안의 얼룩은 삶 속에서 누리고자 하는 최고, 최선의 여건을 만들고 영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값진 땀방울을 의미하며, 그 속에서 보여지는 얇고 구불구불한 선들은 미래의 희망적인 길로 인도하는 방향성 제시를 의미한다.

【작품 4】 마음 따라... I



【작품 5】 마음 따라...II



【작품 4】 마음 따라... I

【작품 5】 마음 따라... II

재 료 : 견섬유(Silk), 산성염료

기 법 : 납방염

크 기 : 151×100cm

제작연도 : 2004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고정된 시각으로 정해져 버린 감정과 사고를 갖게 되었다. 나만의 독특한 생각도 아니고 다른 누구 하나의 생각도 아닌 은연중에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에 의해 자연스럽게 그것에 지배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관념적 틀 속에서 한 치의 벗어남 없이 사는 사람이라 해도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그 틀을 거부하고 싶은 강한 움직임이 있다. 단지 고정된 관념의 틀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그 강렬한 움직임이 외부에 표출되지 않는 것이다.

[작품4]와 [작품5]에서는 화면의 면 분할을 통하여 현실 세계를 묘사하였다. 면 분할을 통한 사각형은 사회적 관념의 틀을 형상화 한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세밀하게 짜여진 일과표와 같은 것이며 그 일과표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곳이다. 그 일과(日課)의 내용은 구차하고 보잘 것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곳을 떠나서는 불안하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한다.

또 다시 틀에 맞춰지고 그 곳에서의 고정화된 잣대로 평가하고 평가받게 되며 그로 인해 존재 의미마저 잃게 된다.

면 분할 안에는 또 다른 사각형이 있다. 이는 현실의 공간을 벗어난 내적 심상

의 세계를 지니고 있는 비가시적인 공간이다. 이곳은 고정화된 일상을 탈피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 꿈의 세계가 존재하는 공간이다.

일정한 비례를 맞추지 않은 분할(分割)을 통해 아주 작은 부분만을 보여줌으로써 무한히 확장된 공간을 암시하게 하였다. 또한 깊이감을 주어 내면의 공간임을 표현하려 하였다.

사각의 움직임은 일상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다.

이는 고정적이고 불변하는 사회의 관념을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며 그러한 노력 과정으로 변화하고 창조적인 인간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작품4]에서는 꽃 형태를 동적으로 표현하여 자유로운 존재의 모습과 그에 대한 욕망을 나타내 주었다. 핑크색(pink)과 노란색(yellow)의 채도 높은 색상의 사용으로 명시성을 높여주었으며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였다.

[작품5]에서는 사각형 안에 집합된 다양한 형태와 색으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저마다의 무한한 꿈을 나타내었다. 작은 꿈을 설계하고 이루는 과정을 반복하여 마침내는 큰 꿈을 이루는 모습을 작은 조각들의 집합으로 표현하였다.

여백으로 표현된 공간은 앞으로 꿈을 이뤄서 채울 수 있는 공간으로 남겨 두었는데, 이 공간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또다시 작은 꿈들을 설계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꿈이 실현되고 완성되는 그 날을 위하여...

【작품 6】 기대



【작품 6】 기대

재 료 : 견섬유(Silk), 산성염료

기 법 : 납방염

크 기 : 103×67cm

제작연도 : 2004

“인간은 희망의 존재이며 그것이 인생의 기본 방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본질적인 희망으로 되돌아 갈 때 지금의 모순된 상황, 절망에서 벗어 날 수 있을 것이다.”¹¹⁾

즉 인간은 누구나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를 동경하며 아직 갖지 못한 어떤 처지나, 인물, 보다 나은 상황을 그리며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 희망 속에 능동적으로 삶을 지배하는 존재로서의 자아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본 작품에서는 직선의 교차로 미로 이미지를 표현하였는데 ‘직선’이것은 긴장 상태에서 무수한 움직임의 가능성을 지닌 가장 간결한 형태¹²⁾이다. 그것은 인생의 미완성과 알 수 없는 미지의 어느 부분을 상징한다. 시작하는 자의 앞에 놓인 무한한 가능성과 예측하지 못할 변화 속에 다가올 희망까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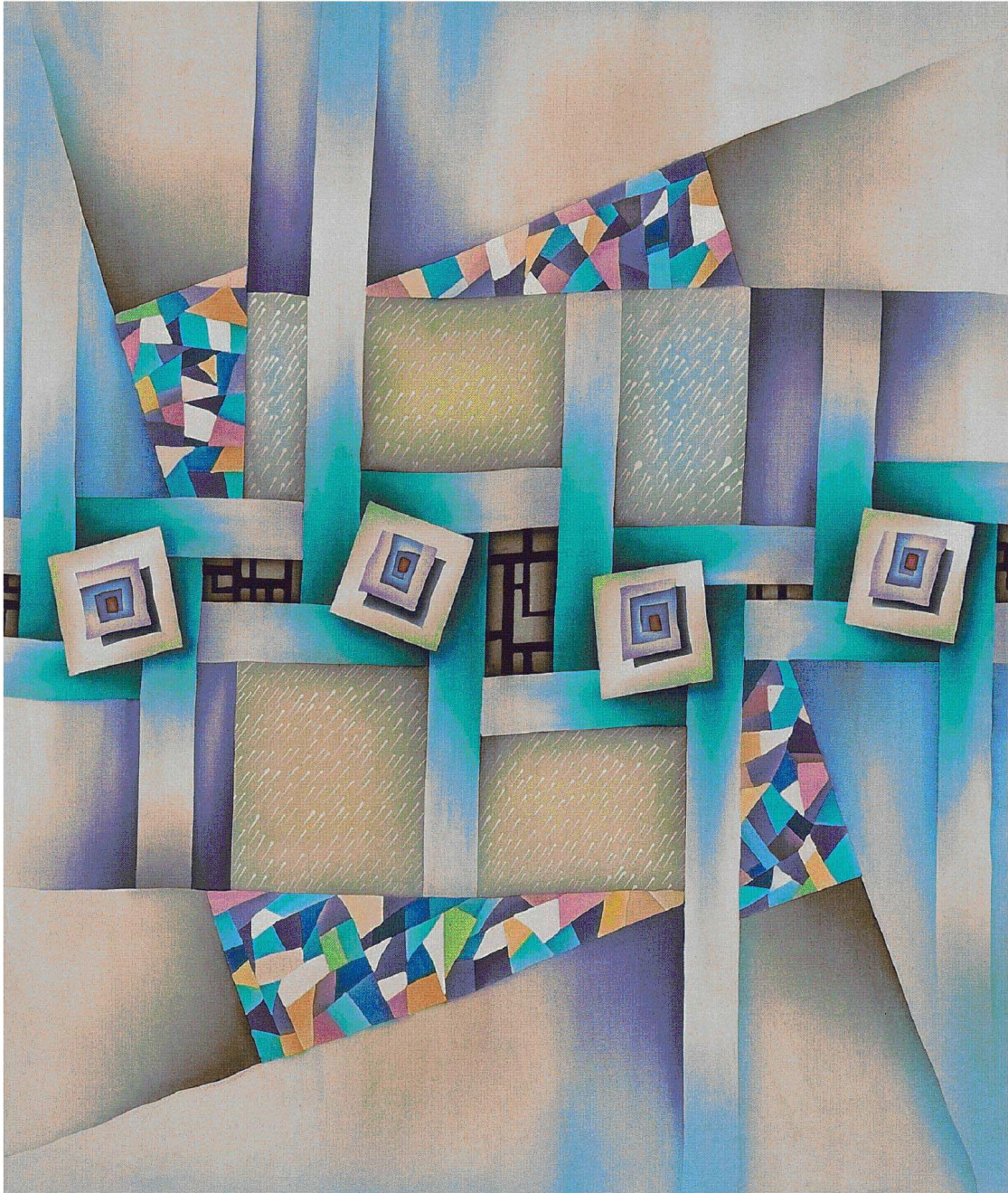
또한 알코올 기법을 사용하여 끊임없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모험을 감행하는 모습을 추상적으로 표현하였다. 그 속에는 희망을 향한 집중과 응집된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다.

노란색(Yellow)를 사용하여 빛을 나타내려 하였으며 사각형 안에서 푸른색(Blue)을 사용하여 보이지 않는 기대감을 표현하였다.

11) 심상태, 「인간」, 서광사, 1989, p.47.

12) 바실리 칸딘스키, 「점, 선, 면」, 차봉희역, 열화당, 1983, p.47.

【작품 7】 또 다른 시작



【작품 7】 또 다른 시작

재 료 : 견섬유(Silk), 산성염료

기 법 : 납방염

크 기 : 83×74cm

제작연도 : 2004

인간은 평생 동안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며 살아간다.

현실에서의 있는 그대로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또 다른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인생에서의 도전과 성취의 반복은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한 과정은 희망의 현실이 되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여 준다.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삶의 체험을 하게 되고 막연한 미래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 불만으로 가득 찼던 현실은 밝고 희망적인 현실이 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 또한 제시하여 준다.

본 작품에서의 미로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도전하는 공간이다.

그 속에서 끊임없는 도전을 하고 그 끝에 얻어진 희망을 사각형 안의 아주 작은 사각형으로 표현하였다. 채도가 높은 핑크색(Pink)으로 강렬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욕구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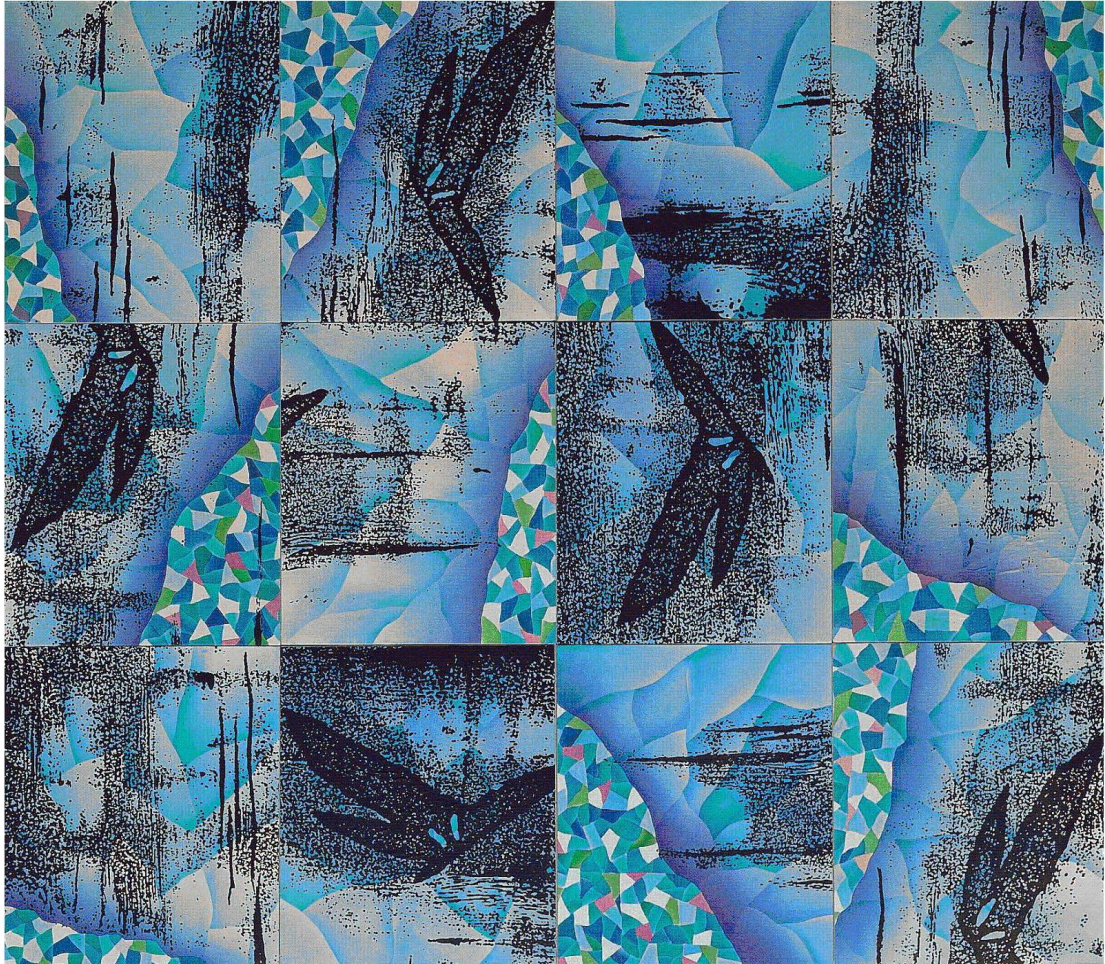
도전에 의한 변화와 희망적 현실은 배경에 그려진 부정형의 형태로 표현하였는데 정해져 있거나 같은 모양이 아닌 각기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현실에 대응하고 의지에 의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작은 직사각형 안에 있는 직선들의 교차는 편협한 사고와 현실의 틀에 박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표현하였으며 갈색(Brown)을 사용하여 암울함과

심각성을 더해주려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청록색(Blue green)과 흰색(White)으로 표현된 선들은 끝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과 그로 인해 자신만의 길을 찾고자 하는 욕망을 타나내주었다.

【작품 8】 심원



【작품 8】 심원 (深遠)

재 료 : 견섬유(Silk), 산성염료

기 법 : 납방염, 실크스크린

크 기 : 162×196cm

제작연도 : 2004

출발점에 서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늘 두렵고 어려운 일이지만
가능성이라는 거대한 힘이 내재되어 있기에 또다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시
도해 본다.

가능성은 수많은 변화와 어려움, 끝없는 갈등을 현명하게 대처해 나아갈 수 있
는 삶의 지혜를 가져다주는 원동력이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는 강한 의지를 갖는 순간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꿈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변화한다.

바탕에 깔려진 불확실한 면들로 현실에서의 방황과 갈등을 표현하였다.

이는 실크스크린 기법을 사용하여 현실 세계의 각박하고 답답한 모습과 혼란스
러움을 강조하였으며 그 속에서 나타난 날개 이미지로 그러한 현실에 스며들고
있는 희망을 표현하였다. 날개의 이미지는 어려운 상황에서의 극복을 의미하며
현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을 의미한다.

부분 부분 보여지는 면의 집합은 바탕과 대조적으로 분명한 선과 색상을 사용
하여 노력으로 얻어진 결실의 집합체를 추상적으로 나타내었다.

Ⅲ. 결 론

예술이란 대상을 작가의 내면세계와 주관에 의해 표현하고 변화를 시도하며 변형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가에게 전달되는 사물의 이미지는 그 자체와는 다른 새로운 이미지로 표현되기도 하고 다른 대상과의 결합, 재구성을 통해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어 질 수 있다.

또한 대상의 이미지는 작가의 무한한 상상력과 경험에서 얻어진 시행착오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형태와 방법으로 표현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로라는 공간 이미지를 통하여 표면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의미와 상징성을 찾고자 하였으며 그러한 상징적 의미를 본 연구자가 느낀 주관적인 관점에서 조형적인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미로의 이미지는 직선의 결합과 교차, 나선형으로 표현하였으며 색면과 색채 등의 표현, 무한한 공간 등의 분할을 통해 현실 공간이라는 주관적 개념을 이입시켰다. 또한 사각형과 기하학, 꽃, 날개 등의 형상들과 결합하여 미로 이미지와 연관시켜 본인의 심상을 표현하였으며 시각의 한계를 넘어 화면에서 그 이상의 공간과 심상을 표현하려 하였다.

이러한 주관적인 감정의 보다 적합한 표현을 위하여 형태의 변형, 분할 등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평면적인 화면을 입체적으로도 표현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소재에 대한 관찰과 끊임없는 사고의 과정 속에서 과거와 현재에 대해 기억하고 기록하며 일상적인 삶의 시간과 순환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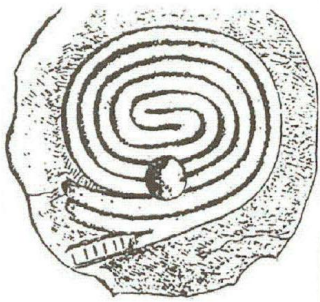
또한 어떠한 대상에 주관적인 감정을 이입시켜 나타내는 것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깊이 있는 연구와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조형성을 시도해야 함을 느꼈다.

이에 본인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과 기법, 재료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폭넓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더욱 새로운 조형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참 고 도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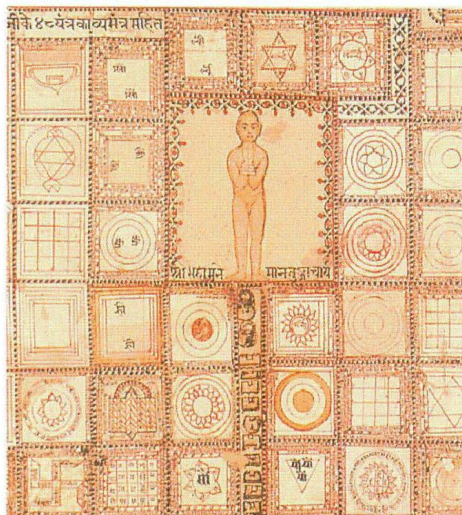
<도 1> 늪지대, 모로코 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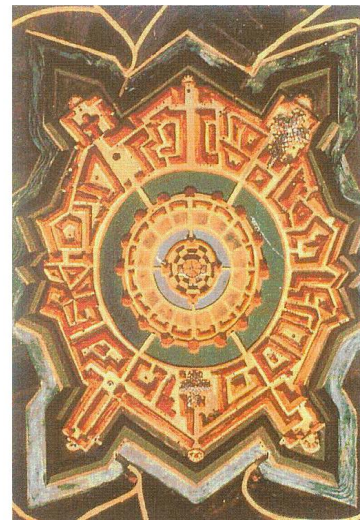
<도 2> 점성가가 쓰던 서판,
바빌로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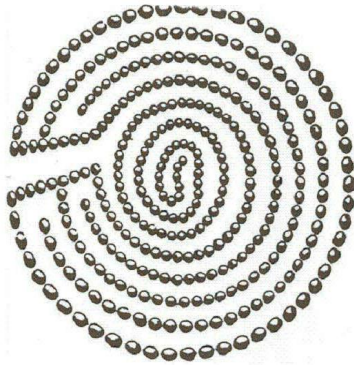
<도 3> 어머니인 대지를 나타내는 호피족의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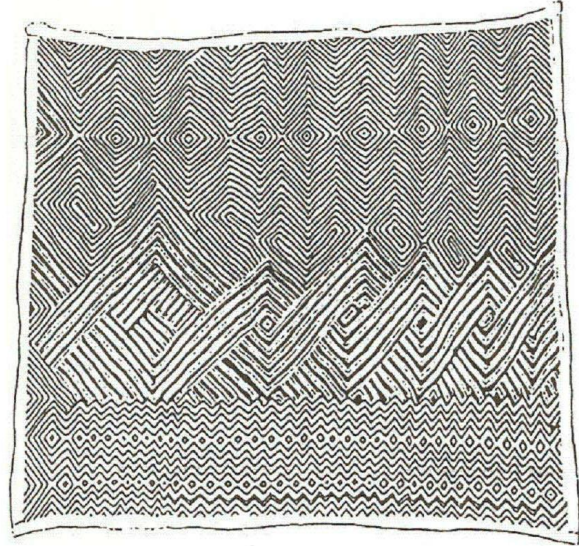
<도 4> 만다라, 라자스탄, 18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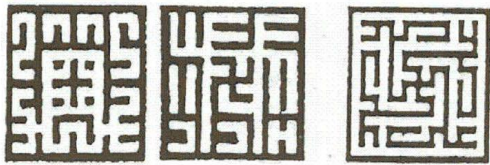
<도 5> 성(城), 유럽의 만다라 1928 C.G. 융



<도 6> 자갈미로, 비에르 섬, 핀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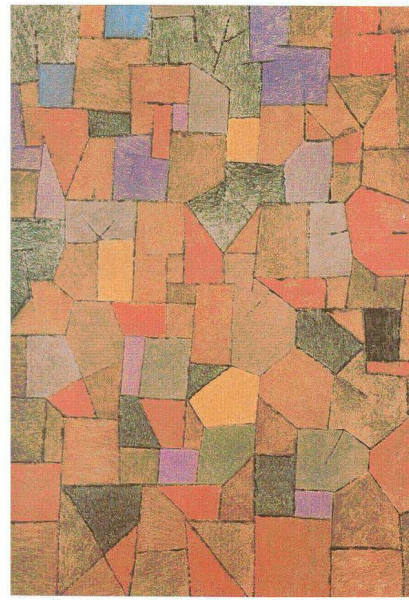
<도 8> 느넨제즈족의 자수주제



<도 7> 쿠바족의 자수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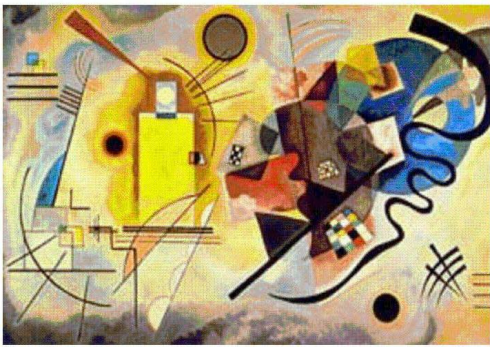
<도판 9> 클레(Klee), 『그림아치』, 유화,
59×56cm, 19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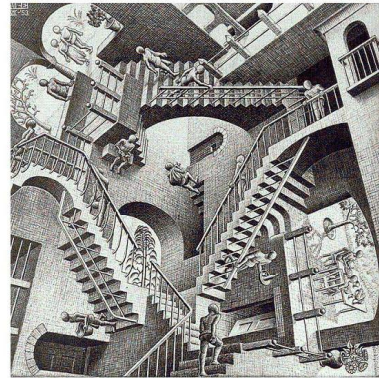
<도판 10> 클레(Klee), 『산존』, 유화,
69×54cm, 19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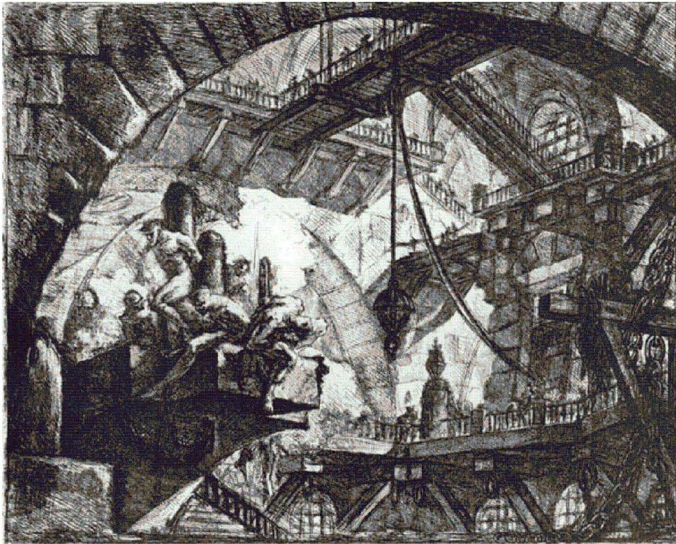
<도판 11> 클레(Klee), 『번영하는 항구』, 템페라화, 75×16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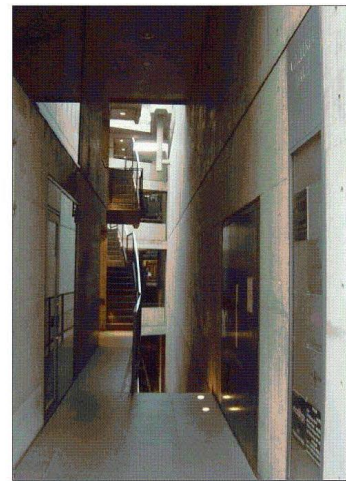
<도판 12> 칸딘스키(Kandinsky), 『노랑, 빨강, 파랑』, 유채, 127×200cm, 1925



<도판 13> 에세(M.C. Escher), 『상대성』, 석판화, 1953



<도판 14> 피라네지(Piranesi), 『환상의 감옥』, 에칭, 54.5×41.5cm, 1760년경



<도판 15> 안도 다다오(Ando Tadao), Bigilidue, 일본 오사카

참 고 문 헌

단행본 및 외국 문헌

바실리 칸딘스키, 『점,선,면』 차봉희 역, 열화당 1983.

서재행, 『공예 염색기법』, 미진사, 1991.

심상태, 『인간』, 서광사, 1989.

이영일, 『일본 아틀리에 건축가 안도 다다오』, 플러스, 1992년 9월.

이재선, 『한국의 현대염색』, 미술문화, 2001.

자크 아탈리, 『미로-지혜에 이르는 길』, 이인철 역, 영림 카디널, 1997.

정동림, 『섬유염색』, 교학연구사, 1999.

전인도, 『안도 다다오의 건축철학과 공간구성』, 건축문화, 1994년 11월

학위논문

박혜성, “미로에서의 공간체험과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0.

유한달, “화면분할에 의한 시 공간 표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3.

정혜선, “사각형 오브제의 반복과 변화를 통하여 본 삶의 모습”,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7.

ABSTRACT

The Study on Imaginary Expression through Labyrinth Image.

- Centering around My Dyed Work -

**Park, Hyun Hee
Dept. of Craf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Human is inclined to feel insecurity, solitude, doubt, nihilism, disappointment, etc. and escape from such bondages. Even if challenge to overcome reality is useless repetition of failure, such a infinite effort & continuous volition helps human with knowledge only the restriction or boundary from heart & mind, not the limit of realities exists. As looking to such a challenge with process giving significance or meaning to concepts treated with fear that it may remain for ever, unknown pressure to press writer's mind could be cured and at the same time courage to gaze on realities and overcome them arose from the depth of mind.

Even then, way to go in the future will be seen, furthermore, inner growth accomplished, importance of process for attaining to the end, acknowledged, and more creative person born again through countless

experiences & efforts. To writer herself, labyrinth is the actual situation & space of beginning, infinite space of possibilities, place to dream a infinite dream to future with wish that limit to realities may be overcome and a kind of new challenge may be accomplished.

In the space not to predict the result, destruction & creation are repeated with psychological conflict experienced. But dream will be realized with experience, judgement, and potential ability exercised altogether.

In this study, reality is a kind of place to overcome fears, discover the possibilities of the future, and furthermore, accomplish inner maturity & growth as well as a space to acknowledge the reality. This study is required to express the image in human mind by comparing place and space to maze and putting them in shape.